



교 훈
즐거움 배우고
튼튼하게 닦아서
올바르게 행하자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행복 교육

기린가정통신

교무실: 241-7442

행정실: 241-7443

빛나지 않는 별, 차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화사한 햇살에 푸름과 생기가 더해 가는 4월입니다.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적 기념일입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조화의 행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학교와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에 대해 되돌아보는 날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많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어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날 대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

언젠가 다름이 인정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장애인의 날'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막연한 먼 훗날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장난삼아, 악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평범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칼이 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별생각 없이 던진 표현들이 내 친구, 가족에게도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고정관념 + 편견 + 혐오 + 습관 = 차별어의 탄생!!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출처: 김청연,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동녘, 2019

2025. 4. 16.

전 주기린초등학교장